

예쁘장한 '국민 시어머니'로 양념 톡톡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박정수는 훗날 배우가 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덕성여대 제 약학과에 진학한 평범한 학생이었다. 재학 중 친구의 권유로 MBC 공채 텔레비전 5기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하면서 연기자의 길을 시작했다. 데뷔 후 동 대학 경영학과로 전과해 졸업했다.

데뷔 초인 1974년 MBC 연기대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면서 공채 동기생 고두심과 함께 촉망받는 신인 여배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데뷔 3년 만인 1975년 한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돌연 은퇴해 대중에 놀라움을 줬다.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남편의 사업 악화로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1989년 MBC 미니시리즈 '상처'로 연예계로 복귀했다. 14년 공백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알렸다.

1991년 김수현 작가의 MBC 드라마 '사



랑이 뒤길래'로 점차 이름을 알린 뒤 1995년 SBS 시트콤 'LA 아리랑', KBS1 주말드라마 '이 여자가 사는 법'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이 여자가 사는 법'에서 친구의 시아버지와 결혼해 이수라장 집안을 만드는 역할로 강렬함을 선사했다.

네다섯 편의 드라마에 동시 출연할 정도로 열심히 출연하던 박정수는 남편과의 관계 악화로 1997년 합의 이혼했다.

2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무대로 돌아와 해마다 3~4개의 작품에 출연했다. 당시 출연 대표작은 MBC 주말연속극 '그대 그리고 나', SBS 일일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MBC 드라마 '허준' 등이 있다.

2008년 드라마 '천사의 분노' '부모님 전상사' '천일의 약속' '무자식 상팔자' 등의 히트작을 만든 정응영 PD와 스캔들이났다. 스타 PD와 유명 연예인의 만남에 이목을 끌었다.

두 사람은 2009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동거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정 PD는 "(박정수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친한 친구로서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수 역시 "아직 재혼의사는 없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관계를 풀이해 인정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결혼식과 혼인신고

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이어오고 있다. 정 PD의 아들 정경호 역시 박정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수의 안정된 연기는 2010년 MBC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서도 빛났다. 이 드라마로 그해 MBC 연기대상 중견배우 부문 황금연기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최근 출연 작품은 지난해 9월 개봉한 70년대 영화판을 담은 영화 '거미집'이다. '거미집'은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12분간 기립 박수를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노장 배우 오 여사 역을 맡아 관록의 연기를 선보였다. 1970년대 촬영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수라장 같은 영화 촬영 현장을 바라보는 황당함을 특유의 생활 연기로 실감 나게 그려내 호평받았다.

무르익은 연기력으로 '국민 시어머니'라



박정수

연배우

는 별칭을 얻은 박정수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빌딩(사진) 한 동을 2005년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매입가를 2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2012년 신축을 진행해 면적 298.4㎡(약 90.26평)·연면적 727.87㎡(약 220.18평)·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다시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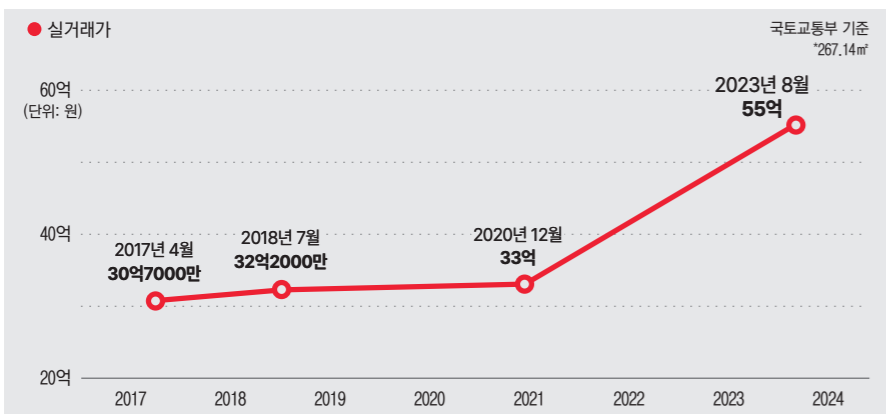
압구정 로데오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며 2012년 기준 시

세 64억 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세는 지난해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빌딩과 비교해 150억~170억 원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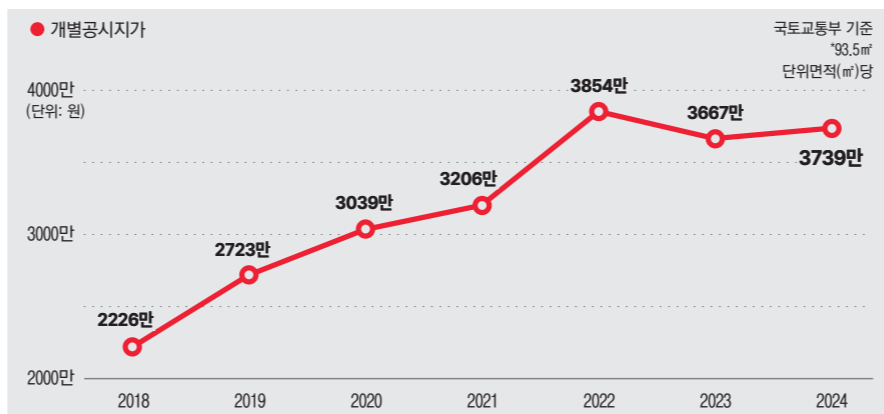
지난해 10월30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절친 토크멘터리 4인용 식탁'에 출연한 박정수는 빌딩을 소개하면서 정 PD의 작업실도 최초 공개했다. 프로그램에서 작업실을 함께 구경하던 절친들은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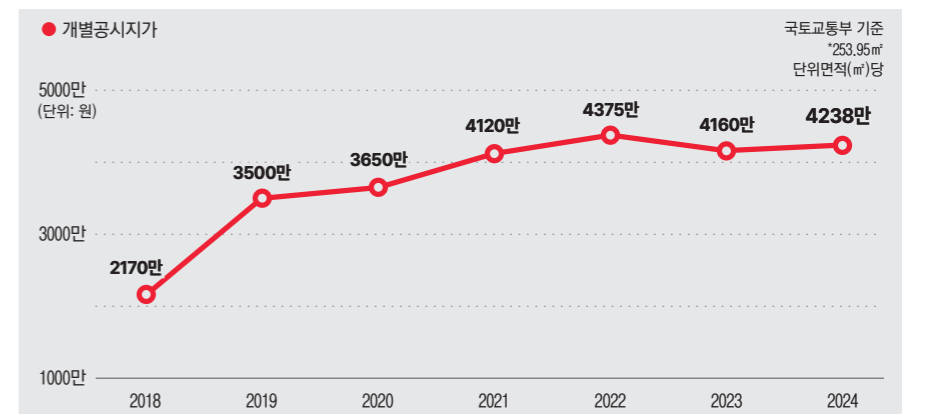
알파임하우스



빌딩



빌딩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로 유학을 다녀와 서울고법 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장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박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초대 노동 재판부 재판장, 법원행정처 초대 송무심의관을 지내는 등 법원 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6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7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부



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과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 실현과 국가민족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박 전 위원장의 저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방송법제론' '언론과 개인법'의 '세계언론관계총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법' '언론의 자유' 등이 있다.

서정돈

전 성균관대 총장



서정돈 전 성균관대 총장은 1967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1997년 서울대 의과 교수로 재직 한 후 1997년부터 성균관대 의과대학 초대 학장을 맡아 이끌며 2003~2011년 제 18대 성균관대 총장, 2015~2019년 학교법인 성균관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학계에서는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5년 한국 의학교육학회가 수여하는 인당의학교육 대상상을 수상했다. 인당의학교육대상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1997년 제정한 상으로 의학 교육 발전

때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과 삼성서울병원·삼성노블 카운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강호동

현방송인



강호동은 1988년 조흥금융 씨름단 입단 후 이듬해 열린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 대회 준결승전에서 민수씨름 초대 천하장사였던 이만기를 이겨 주목받았다. 결승전에서 임용제를 3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씨름계를 제패했고 1993년 MBC 특채 코미디언에 뽑혀 개그맨으로 변신했다.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 SBS 'X맨을 찾아라' 등에서 메인 MC를 맡았으며 SBS '스타킹', KBS2 '1박 2일' 등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유채석과 양강 구도를 이루며 이른바 예능계 '유강 라인'을 구축했다. 2007 SBS 방



송연예대상, 2008 KBS 연예대상, 2008 MBC 방송연예대상, 2009 KBS 연예대상, 2010 SBS 연예대상 등에서 수많은 대상을 받아 예능계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